

지역 소식통

신소득 육성품목 부안 해풍양파 1억 5000만원 종자대 지원

부안군이 부안 해풍양파를 부안 신 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대 지원 농가소득증대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2017년 부안 해풍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사업비 중 준비예산을 지난해 9000만 원에서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증액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결과 총 635개 농가에서 530여 ha를 신청했으며 농사 별로 균등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부안 해풍양파는 올해 517개 농가 331ha에서 1만 8000여 톤을 생산해 143억 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으며 내년에는 재배규모가 530ha로 확대돼 3만 3000여 톤을 생산해 200억 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서 심원치안센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앞장

고창서 심원치안센터는 지난 22일부터 3일에 걸쳐 심원면 선운대로(발형치사거리~용선삼거리) 전체 구간의 잡목, 잡풀을 제거하고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에 힘썼다.

여름내 자란 잡목 등이 우거져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자율방범대, 지자체 등 10여명이 참여하여 도로변 운전자 시야 확보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했다.

이와 더불어 사고위험 구간에는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앞지르기,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사고요인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초·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고고창군이 개화기를 맞아 고창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속경보시스템'이란 주로 어린이·노인 등 교통취약 계층 보호구역,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곳에 설치되는 교통안전 시설물로,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전광판에 표시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고창군은 고창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야간에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식별성을 용이하게 하는 LED투광기구를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부안 졸포만갯벌생태공원서 개최

9월 10일 개막... 전 세계 61개국 참가 연구생 1조 출신 최광호 선수, 한국 대표 출전

세계 바둑인들의 대축제, 제12회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가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부안군 졸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열린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국무총리배는 국제바둑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야마추어바둑선수권대회와 세계 유이의 바둑선수권대회이며, 최대 참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한국 바둑의 국제보급 및 바둑최강국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12주년을 맞는 올해는 전 세계 61개국 대표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최국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15개국, 유럽 32개국, 미주 11개국, 대양주 2개국, 아프리카 1개국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 대표선수로는 연구생 1조 출신 최광호 선수가 출전한다.

최광호는 지난 7월 29일과 30일 이틀 간 서울 용산 서울문화사 강당에

서 벌어진 국내대표선수 선발전 결승에서 감지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한국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본선 티켓을 획득한 최광호는 "7연속 승리를 거두며 출전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무척 기쁘다. 세계대회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설레고 떨리지만 한국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만큼 열심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과 함께 우승을 다툰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신에 짜오이강 선수가 출전한다. 99년생으로 10대이긴 하나 만만치 않은 기량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바둑의 한 축인 일본은 94년생 오제키 미노루 선수가 출전한다.

제4회 세계대학생바둑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세계화생왕좌전 우승, 일본 야마추어 명인전 우승 등 화려한 입상 경력을 자랑한다.

전력이 베일에 가려있는 대만도 쉬

용위 선수가 2000년생이어서 복병으로 꼽힌다.

대만은 2008년 제3회 대회에서 젠리 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10일 오후 6시 전야제 겸 개막식을 시작으로, 메인대회는 11~13일 3일간에 걸쳐 스위스리그 방식 6라운드를 치러 우승자부터 최하위까지 전체 순위를 매기게 된다. 선수들은 하루에 2라운드씩 소화하게 되며 제한시간은 각자 40분에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바둑행사 뿐 아니라 한국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개막식과 시상식에는 한국전통공연으로 한국을 찾아온 세계인들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며, 대회를 마친 14일에는 부안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내소사 등 개최지 부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한편 제12회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는 대한바둑협회가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부안=이옥수기자

안도현 시인, 30일 정읍시민 대상 특강

안도현 시인(사진)이 오는 30일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는다.

안시인은 당일 오후 2시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시를 읽은 즐거움'을 주제로 강연한다.

시인은 이날 직접 고른 10여 편의 시를 시민들과 함께 낭독하며 시와 문학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강좌를 마련한 시는 "시인과의 만남을 통해 시인의 감수성을 공유하며 일상에서의 시적인 것을 발견하는, 소중한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안 시인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를 비롯 '연탄재 함부로 발로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구절로 유명한 시 '너에게 묻는다' 등 주옥같은 시들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기 시인이다.

경북 예천 출생의 원광대학교 국문과와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



예 시 '낙동강'으로 등단했다.

이후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눈 내리는 만경들 건너가네/헤진 짙신에 상투 하나 떼가네/가는 길 그리운 이 아무도 없네/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거나/올해 울지 않으며 가는/우리 봉준이/뽕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푸네"로 시작하는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됐다.

안시인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소한 사건들을 따뜻하고 탁월한 시적 언어로 표현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연어', '바닷가 우체국', '외롭고 높고 쓸쓸한', '간절하게 참 절망이', '백석광전 등이 있다. 제13회 소월시문학상, 제12회 이수문학상, 제2회 운동주문학상, 제11회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11월까지 매일 마지막 수요일에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들이 강사로 나서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다.

9월에는 개구무먼 출신 행복디자이너 장미희씨가 '재미있는 세상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2017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 충효대상' 고창군, 지역행정혁신부문 대상 수상



고창군(군수 박우정·사진)이 '2017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 충효대상'에서 지역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24일 '2017 대한민국 충효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의사기자협회, 언론인연합회의 회, 국민행복시대 주관으로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17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귀감이 된 각계 명사들의 공로

를 치하하고 표창하는 상이다.

고창군은 민선6기 들어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와 활발한 소통행정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전하면서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곡삼사르습지 예초촌 조성사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은 군민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군민을 배려한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잘 보존 관리된 자연생태환경을 성장동력 삼아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읍지연습 성료... 전시상황 메시지 60여건 처리

지난 21일 시작된 2017년 읍지연습이 2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빈틈 없는 읍지연습으로 평화안보를 실현하자'는 방침 속에 진행된 훈련에는 공무원과 군 장병, 경찰, 소방관 등 기관 종사자와 여성민방위대원, 사회단체 회원, 자원봉사자를 비롯 시민 등 3만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읍지 2종 동원령 선포와 동시 전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읍·면·동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해 군의 지역방위훈련을 지원했다.

훈련기간 포격과 화생방 공격 등에 대한 주민대피 훈련에 중점을 두고 24개소(49동) 지하대피소를 일제점검했고, 전시 주민행동요령 안내전단 2만매도 배포했다.

시범훈련으로 시가동 삼화그린아파트에서는 북한 장사정포 포격을 가상해 주민대피 실제훈련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했다.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비롯 전시작전 훈련 등에 대한 도상 훈련과 전장수행 제 기구의 참실 및 운영훈련, 42개 통합 상황 조치모델 훈련도 진행했다.

특히 읍지연습장에서는 도상훈련 메시지 60여건을 처리했고, 전시 예산편성대책 등 전시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전시 총무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거동 수상자 색출을 위한 23개 주민 신고망 운영, 해안침투대피훈련과 국가 중요시설 방호훈련, 대테러 진압훈련도 실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